

손제이·송지민 남녀부 정상... 국대 포인트 600점 수확

제23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나주골드레이크CC서 72홀 스트로크플레이...200명 경쟁 광주 유민혁, 9인더파 279타 '톱5'... "태극마크 달겠다"

국내 메이저 아마추어 골프대회인 '제23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손제이(동아중 3년)와 송지민(천안중앙방통고 2년)이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골프협회(회장 한정희)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회장 강형모)가 주관했다.

대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대다수를 포함한 KGA 랭킹시스템 88위 이내 선수와 대회 예선전 상위 성적자 12명 등 남자부 100명, 여자부 100명이 출전한 가운데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쳤다. 2라운드 종료 후에는 컷오프를 진행, 남녀 각 48명만이 3라운드를 거쳐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자를 가렸다.

특히 이번 빛고을중흥배는 내년 국가대표 선발 점수가 걸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600점이 부여되고 2등에게는 440점이, 3등에게는 360점이 돌아간다.

대회 결과 남자부에서는 13인더파와 275타를 기록한 손제이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제이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치며 8인더파 64타로 앞서나갔다.

그는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각각 70타·73타로 주춤한 했지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보기 1개로 4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결국 1위에 등극했다.

2017년 가동초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손제이는 2022 제5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단체전 1위, 2024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1위 등에 오르며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그는 "우선 대회를 개최해주신 광주광역시골프협회와 대한골프협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코스에서 경기를 치르게 해주신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 감사하다"며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을 따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불모밭인 국가대표 형들과 함께해서 긴장도 됐지만, 마음 비우고 티샷과 퍼터에 집중했다니 스코어가 잘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해 목표인 국가대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자부에서는 7인더파 281타를 친 송지민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송지민은 대회 첫날 2인더파 70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틀날에는 이븐파 72타로 5위에 머물렀다. 이후 3일째 2인더파 70타로 선두권을 바짝 추격한 송지민은 최종일에서 3인더파 69타로 활약하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지난 10일 제36회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송지민은 이로써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송지민은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대회에서 세컨샷이 잘 됐던 것 같다. 그전에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하기가 수월했고, 3라운드 때부터 퍼팅도 잘 떨어져서 우승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를 목표로 항상 자신 있게 친 선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 로리 맥길로이 같은



16일 오후 나주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3회 빛고을 중흥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시상식에서 한창희 광주광역시골프협회장, 박재형 대한골프협회 전무이사, 임대형 골드레이크CC 대표이사과 남녀부 우승을 차지한 손제이·송지민 선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유민혁(서강고 2년)이 남자부 톱5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민혁은 9인더파 279타로 4위를 차지했다. 그는 대회 1·2라운드에서 각각 70타·72타로 10위권에 머물렀으나,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그 결과 4위로 경쟁 뛰어오른 그는 최종 4라운드에서 2인더파 70타로 순위를 굳혔다.

2016년부터 골프를 시작한 유민혁은 광주 풍향초-동신중을 거쳐 서강고에 진학한 뒤 맹활약하고 있다. 현재 KGA 랭킹 3위에 위치한 그는 지난해

제5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제1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했다.

유민혁은 "2라운드 때 경기가 잘 안 풀려서 아쉬웠다"면서도 "아직 많은 대회가 남았다. 지난해 2번의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3개 대회 우승과 함께 1등으로 국가대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창희 광주광역시골프협회장, 박재형 대한골프협회 전무이사, 임대형 골드레이크CC 사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 2003년 '호심배'로 시작해 2020년부터 대회명을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로 변경해 치러지고 있는 이 대회는 '한국 골프 스타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LPGA), 일본(JLPGA), 태국(TLPGA) 등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 이정은(6. 최나연도 이곳에서 세계무대의 꿈을 키워왔다.

또 KLPGA 이경민·최혜진, KPGA 김경태·이창우·김한별·김동은 등 최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했다. 2022년 3월 프로무대 첫 대회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은 KLPGA 이예린, KPGA 송민혁 등 루키도 이 대회 출신이다. 지난해 '제22회 빛고을중흥배' 남녀부 우승자인 김민수와 송지민은 이 대회 우승을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두산 상대 시즌 첫 스윙...4연승 질주



주말 3차전서 5-4 승... 김도현, 6이닝 3실점 역투
오선우, 4회말 투런포... 한준수, 10회말 끝내기 안타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첫 스윙승을 달성했다. KIA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베어스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5-4로 승리했다.

앞서 17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던 KIA는 이날 시즌 첫 스윙승을 기록, 4연승 질주와 함께 승률 5할(22승 22패)을 달성했다.

KIA는 이날 타선을 최원준(우익수)-박찬호(유격수)-김도영(3루수)-최형우(지명타자)-오선우(좌익수)-홍중표(2루수)-김규성(1루수)-김태균(포수)-박정우(중견수)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김도현이 나섰다. 총 101개의 공

을 던진 김도현은 6이닝 8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 3실점으로 역투했다.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김도현은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타자 케이트 망블 이후에는 양의지에게 2루타를 맞았다. 이어 김재환을 땅볼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성공했다.

2회초에는 양석환에게 안타를 내줬으나 세 타자 연속 뜬공으로 이닝을 막았다. 3회초에는 상대 조수형 우전 안타 이후 김태균의 활약이 빛났다. 정수빈의 번트를 김태균이 잡아 3루로 송구, 2루 주자 조수형을 잡아냈다.

이어 정수빈의 도루까지 저지하면서 아웃카운트 2개를 올렸다. 김도현은 케이트에게 볼넷을 내

준 뒤 양의지를 땅볼로 처리,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KIA는 4회초 첫 실점을 했다. 2사 3루 상황 상대 강승호가 중견수 왼쪽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경기는 0-1이 됐다.

하지만 4회말 곧바로 역전이 나왔다.

선두타자 최형우 볼넷 이후 타석에 오른 오선우가 상대 2구투 143km 직구를 그대로 견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5회초 상대 정수빈의 홈런으로 동점이 됐던 경기는 5회말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2사 2루에서 김도영이 좌익수 뒤에 떨어지는 2루타를 때려냈다. 타석에 이어받은 최형우 역시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그 사이 김도영이 홈에 들어왔다. 결국 KIA가 4-2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6회와 7회 각각 1실점을 한 KIA는 10회말 1사 1·2루 한준수의 끝내기 안타로 5-4 승리를 거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 경기에서 시구를 하기 위해 1980년 당시를 재현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선동열 넘었다' KIA 정해영, 타이거즈 최다 세이브 통산 134세이브 달성... "팀 승리 끝까지 지키는 선수될 것"

KIA 타이거즈 '수호신' 정해영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을 썼다.

정해영은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 9회말 5-2로 앞선 상황에서 구원 등판, 세 타자를 깔끔히 돌려세우며 세이브를 추가했다. 이어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세이브를 추가한 정해영은 이로써 통산 134세이브를 달성, 선동열의 132세이브 기록을 넘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 보유자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차 지명으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정해영은 이듬해 프로 데뷔 2년차부터 전문 마무리 투수로 활약 중이다. 정해영은 마무리 투수 첫해 34세이브 달성을 시작으로 2022년 2년 연속 30세

이브(타이거즈 최초), 2023년 3년 연속 20세이브(타이거즈 최초), 2024년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및 데뷔 첫 세이브왕 수상 등 세이브 부문에서 굵직한 기록들을 남기며 타이거즈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광주 롯데전에는 23세 8개월 20일의 나이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해영은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돼 기쁘고 크나큰 영광이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 큰 기록을 달성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다른 기록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팀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전남선수단, 전국장애학생체전 '맹활약'

광주, 금 16·은 12·동 18개
전남, 금 14·은 28·동 31개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6일 대안원의 막을 내렸다. 11개 종목 12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금메달 1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8개를 획득했다.

역도 김유나(선예학교 중 1년)는 여자 -60kg급 지적 OPEN 중등부 스쿼트·데드리프트·파워리프트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육상 김유은(광주선우학교 고 1년), 이가은(광주선명학교 고 2년), 배드민턴 송형우(광주선광학교 고 2년), 조정문

기영(광주자연과학고 3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신정아(선예학교 고 1년)는 여자 -60kg급 지적(발달)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6kg을 들어 올려 학생신기록을 경신했다.

종목에서는 배드민턴이 금 2·동 2개를 획득해 종목 종합 3위에 올랐고, 조정문 금 2·은 1·동 1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목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10개 종목에 147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14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31개를 따냈다. 육상(트랙·시각) 여자 100m와 200m에 출전한 노연희(은광학교), 수영(지적) 여자 배영 100m와 평영 100m에 출전한 김수현(구례여중)은 각각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